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13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13
2021.06.13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396580214>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6.13

1. [누가죄인인가]

한국에서 이미 13년을 살아온 중국국적의 한 여성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한국국적납편과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다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했다. '혹 기사를 안 읽고' '여태 중국국적으로 잘 살다가 왜 이제 와서 한국국적을 얻으려 하나'는 질문을 할 이들을 위해 사족을 달자면, 이 여성의 아들은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한국국적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확실한 언급해둘 것은, 아나키스트 연대는 성의 판매와 구매 모두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자유시장, 혹은 아나키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궤변은, 아나키즘은 무한한 자유의 긍정 이전에 모든 권위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돈 때문이 아닌 성매매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원하지, 그것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성매매 산업 구조는 이것이 존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사자들을, 심지어는 구매자들마저 몰고 가고 있다. 한국의 그 어디를 가든 너무나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공급이 존재한다는, 너무나 극명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러하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비판적으로 변했다는 이들도 있으나 과연 정말 그러한가? 오늘도 저녁만 지나면 변화가 길거리에는 출장안마 명함 찌라시가, 바전단지, 노래방 뼈끼가 즐비하고 인터넷에서는 너무나 쉽게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졌는가?

이렇게 성매매에 진입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산업을 떠나야 이를 키울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더군다나 작금의 현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을 사실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한국의 건축 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국적의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일상다반사이고, 노동강도나 위험도가 높은 노동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이주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끄들들을 몰아넣어 놓고는 왜 그런 짓을 했냐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이들과 생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내 자식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조차 지나친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국가라면, 그런 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행복을 위한 아주 자그마한 것조차 제공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 위해 약한 이들을 끊임없이 궁지로 몰아넣는 이 무

도지분을많이가진자들, 원년투자자들등을위주로저절로중양화되고본래가상화폐가꿈꿨던이상은사라지고말것이다.

“아냐, 그러지않을거야!”라고부정할수도있다. 그리고개인이실제로어떤선택을할지는알수없기에실제로그럴수도있다. 거대자본의왕관을걸어차버릴수도있을것이다. 그렇다면거대자본은전심전력을다해국가의폭력을조종하면서그가상화폐를이세상에서지워버리기위해모든수단을다할것이다. 근대자본주의국가들이사회주의자들을감옥에넣거나사살해버렸듯이, 현대미국이대놓고드론암살을하듯이말이다. 가상화폐는모두가데이터베이스복제본을가지고있기에, 탈중앙화되어있기에국가가간섭하기어렵다는말이무색하게거진모든자본을기반으로하고있는국가들이단합하여그가상화폐의관계자들을나치시절의유대인보다도더심하게잡으려고협력할것이다.

이쯤되면가상화폐가왜이상에도달할수없는지알수있을것이다. 가상화폐가기반으로하는자본주의의자본자체가가상화폐의본질을부정한다는것이다. 자본주의의자본을기반으로하는모든기업이이윤을추구하고그이윤을통해자본을더축적하고, 중앙화하려듯이, 자본에게있어중앙화는정체성이며이를가로막는모든것을어떤형태로든걸어내려한다. 결국블록체인기술이진정으로탈중앙화하려면현재과학기술의기반이되는자본이비자본주의적생산수단으로변해야한다. 과학기술이진정으로국가가거대기업이아닌사회의개개인에의해, 개개인을위해쓰이려면자본주의체제를무너뜨려야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5747_34936.html

능하고비열한국가는, 과연존재해도되는것인가? 과연누가누구에대한죄인인가?

” 노래방도우미中여성” 생계형범죄” 호소에도…法” 귀화불허정당””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10697?sid=102>

2. [미국이돌아왔다!]

미국이돌아왔다! 마크롱대통령이바이든에게나타낸찬사다. 트럼프가나타남으로서기존질서와안정이흔들렸고, 민주주의에위기가찾아와서였던다. 그리고이제서야대화가가능해져서였던다.

돌아온거라면돌아온게맞긴할것이다. 단지다른방향으로더지옥같은현실을자아내고있는것이지만. 그리고더강력한현실은, 달라진게없다는것이겠지만. 트럼프는적어도기존미국의회민주주의라는개념과의회민주주의라는체제에대한대중의신뢰, 인식을땅끝까지갓다쳐박은사람이다. 그리고바이든은이걸다시되돌리려고애를쓰는사람이고, 이시도에다른위정자들은찬사를보내는것이당연할것이다.

의심할여지없이트럼프는파쇼다. 제국주의자였다. 그런데바이든도다를것은없다. 바이든이내부정책으로무언가조금더’ 진보적인’ 정책을내세우고있다면찬사를내비치는사람들에게, 부디정신차리라고하고싶다. 그거 4 년에서 8 년짜리다! 아니, 1~2 년짜리일가능성도농후하다.

미국이되돌아와다시이세계민주주의의거두가되리란생각은애초부터하지말아야한다고우린끊임없이주장한다. 미국은처음부터민주주의의거두였던적없기때문이다. 미국이세력권을형성하던시기부터그들은제국주의자들이었기때문이다. 그들은현재진행형으로국제자본주의적제국주의의핵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니미국이돌아왔다고? 뭘새삼스럽게. 더강화된제국주의, 더강화된눈가리기의연장선일뿐인걸.

”” 이제는대화가능”…G7, 트럼프가고바이든오니’ 훈훈”” :

<http://naver.me/xWNDatRQ>

3. [이게노동조합? 음, 역겨워…]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동조합께서, 택배노동자들의“불법파업”을엄정하게규탄하며, 더이상“국민불편을초래하고집배원 (정규직) 에게업무를전가하여희생을강요하지말”라고선언했다. 참으로안타까운일이다. 우정노조가노동자의연대를헌신짝처럼저버린것이안타까운것이아니다. < 우정노조“우체국택배위탁계약전면해지해야”> 라는헤드라인에어그로가끌려서기사를클릭했다가, “그”“역사와전통의”우정노조임을보고,

‘아, 또 해주셨구나’이상의 감흥을 끌어내지 못하는 우정노조의 줄어들어 버린 어용어 그로가 안타까운 것이다.

그시작을 ‘대한노총’에서 시작하시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파시스트들의 정권 아래에서, 모든 민주적/변혁적 조직들이 탄압당하여 죽어가는 와중에도, 곳곳하게 성세를 누리오신 그분들. 조합원 총투표에서 결정된 총파업을 하루아침에 직권조인으로 뒤엎으시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결단하신, 한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 아래에 있으신 그분들. 감히 집배노조 같은 것을 만들어 민주노조 같은 것을 하겠다는 불순분자들을 사용자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 탄압하신 우국충정의 지사이신 그분들. 애초에 이번 파업의 원흉이 된 택배 민간 위탁 확대를 대승적으로 합의하셨던 그분들이 다보니, 이제 와서 택배노조의 “불법파업”을 엄중히 규탄하시며, 그 불법파업에 동참한 자들을 해고하라고 주장하신 대야 놀랍지도 않다.

그저 우리는, “위탁배달원의 물량거부를 무력화 할 목적으로 집배원들에게 배송을 전가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기만적인 정책에 반대”하면서, “집배원 초과·주말근무부당명령을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동지들의 ‘상식’을 보며 눈을 정화할 뿐이다.

다시 한번, 우정노조께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하시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노동조합”을 하셨지만,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아니다 보니, 학습이 더 필요하신 우정노조의 관료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노동조합관계 “법”의 교육을 시켜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아나키스트에게 법 교육을 받을 정도면, 남들 좁은 강당 같은 것이 맞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 2 조의 6. 은, ““쟁의 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 파업이라고 명칭이 들어.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6121650001

4. [가상화폐의 일장춘몽]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종의 소비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절규는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내부 기준 미달의 가상화폐들을 상장폐지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가상화폐는 단순히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기도 매우 많긴 하다.) 중앙화된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탈중앙적 (?) 자본주의자들의 발칙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고난의 시기일 뿐이고, 언젠가는 기술 발전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이상이라 여길 수

도 있다. 하지만 오늘이 단평에서 짚막하게나마 이 이상이 왜 불가능한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우선 가상화폐의 꿈, 이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이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가 비탈릭 부테린 이 말한 ‘블록체인 트릴레마 (불가능의 삼각정리)’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의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 데 바로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확장성 (Scalability), 보안성 (Security) 이다. 이 중에서 1세대, 2세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 중에서는 2가지를 갖춘 경우는 많지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는 없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전통적인 블록체인류는 탈중앙화, 보안성을 갖췄지만 확장성을 못 갖췄고, 높은 초당 처리 속도를 갖춘 블록체인류는 확장성과 보안성을 갖췄지만 탈중앙화하지 못하였고, 멀티체인 에코시스템류는 탈중앙화와 확장성을 갖췄지만 보안성을 못 갖췄다. 여기서 좀 더 공부한 사람들은 이리 물을 것이다. “그러면 3세대 블록체인은? 3세대 블록체인은 위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 현재 가상화폐의 비기술적인 한계에 대해 알아 보자. 우선 우리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거래하는가? 바로 전용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다. 여기서 바로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각종 가상화폐와 달리 거래소는 대표적인 ‘업비트’ 처럼 중앙화되어 있는, 기업이 통제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에만 압박을 넣어서 거래소를 하청 업체 마냥 통제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거래 방식도 탈중앙화 하도록 기술과 시스템을 잘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과도한 전기와 기소모를 요구하는 작업 증명 (채굴) 대신 투자 기간과 투자 지분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한계를 점차 극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온전히 탈중앙화된, 보안이 잘 되어 있고 확장하기 좋은, 검증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한 블록체인은 등장할 수 있겠지만 가상화폐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밖에 없다.

앞서 말한 그러한 가상화폐가 현재 국제적 자본주의 체제에 등장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정부는 먼저 자신의 본질에 따라 제도 상으로 통제하려 할 것이다. 과거의 가상화폐라면 거래소를 통제하면서 쉽게 규제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 이렇다면 정부가 앞서 움직인다고 보다는 정부의 본래 주인인 자본가와 거래대본이 언론을 움직여서 가상화폐의 약점을 찾아내서 반대 여론 조성을 하려 해 볼 것이다. 과거의 가상화폐라면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사행성 등의 약점들이 많겠지만 이번에는 없다고 치자. 그러면 거래대본은 과거의 자본가들을 내다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비로소 가상화폐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을 새로운 체제의 ‘왕’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왕관을 하사할 것이다. 이렇게 왕관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 가상화폐